

<리뷰>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Timothy Wilt, ed.,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3)

안근조*

디모데 윌트가 편저한 『성서번역: 준거틀들』(*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은 나이다의 내용 동등성의 번역이론 이후 현재까지 발전되어 온 다양한 번역이론들을 소개하고 이에 근거한 새로운 번역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따라서 이 책은 최근의 번역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계속해서 번역 작업을 감당해야 하는 성서 번역자들에게 필독서이며 더 나아가 실천적인 성서 주석 작업을 꾀하는 성서학자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될 만한 책이다.

총 6편의 논문들이 엮여져서 한 권의 책을 이루고 있기에 일관적인 요약과 비평이 쉽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전체에서 드러나는 공통된 초점은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첫째, 나이다의 전통적인 내용 동등성의 번역이론은 이제 그 이론적 보완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유 둘을 든다면, 하나는 이전의 언어학 중심의 번역이론으로부터 현재의 제학문적 논의에 의해 번역이론이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번역의 과제 자체가 더 이상 내용 중심의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언어가 또는 두 문화가 만날 때에 나타나는 제반적인 상호관계성을 다루는 작업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의사소통이론이 번역이론에서 점차로 차지하게 되는 막중한 비중을 강조하고 있다. 번역을 단지 기계적으로 단어 대 단어의 대응 또는 충실한 내용의 일치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전체적인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과정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번역자들은 이제 단순한 전달자(messenger)가 아닌 대변자(spokesperson)가 된다. 또한 번역을 이렇게 의사소통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에 번역의 영역은 주석과 설교 작업에까지 확장하기에 이른다.

셋째, 문화에 대한 고려이다. 번역을 의사소통의 측면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바로 번역이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의 전이적 통화기능

*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구약학

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어떤 글을 이해하고 할 때에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그 글이 쓰이게 된 문화적 배경과 전통의 맥락에서만 온전한 이해와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 발 더 나아가 수용자의 문화에 대한 깊은 고려가 번역문을 원천언어에서 이해됐던 바와 똑같이 이해되도록 표현해 내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려주고 있다.

넷째, 문학적 측면에 대한 번역자의 관심의 증가이다. 벤트란트와 윌트는 공히 문학적 기능적 동등성 이론이, 나이다의 내용동등성 이론과 의사소통 모델에 기반을 둔 기능동등성 이론 이후에 부각되는 이론으로 보고 그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성서의 본문을 문학적인 예술작품으로 보는 것을 인정하는 한, 문학적인 다양한 측면들, 즉 예술적 기술과 수사학적 장치를 통해 드러나는 문학적 기능적 동등성을 추구하는 일을 실력 있고 창조적인 번역자들이 목표로 삼고 성서를 수용언어에서 그 스타일 상 하나의 문학으로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성서학의 발전과의 긴밀한 연관성이 지적된다. 특히 위에서 이야기 된 성서에 대한 문학적 번역에 대한 관심은 성서 해석학 자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문학적 읽기(literary approach) 내지는 신문학비평(new literary criticism)의 영향을 번역이론에서 크게 받고 있는 결과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언어나 문화, 심지어는 사회조직과의 관계성이나 그 문화 공동체의 성향 등을 고려하는 것은 성서학에서 독자비평(reader-response criticism)이라는 독자 중심의 성서연구 방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번역이 하나의 주석 작업이라 할 때, 그 번역이론은 주석 방법론과 더불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게 된다.

*Bible Translation*은 최근에 대두되는 번역이론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음에 그 공헌점이 있으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단점들을 지닌다. 첫째로는, 성서번역에 있어서 새롭게 고려되고 있는 준거틀들(문화, 본문, 사회적 조직들, 성서학 방법론 등)을 각각의 논문에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으나 현재의 책 구성상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6편의 논문들이 주제로 삼고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준거틀들이 그때마다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일관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번역분야의 학자들에게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둘째로, 성서학의 해석 방법론을 다루면서 그 방법론들이 어떻게 번역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노력들이 번역이론가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예증을 동반한 상술이 부족하다. 단지 본 책에서 그라함 오그덴은 성서학에서 다루어지는 비평이론들을 나열하고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1. 번역학 시대의 성서번역¹⁾

알루 모졸라와 에른스트 벤투란트는 오늘날 번역학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번역이론들을 검토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그들의 논의를 번역이론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유진 나이다(Eugene Nida)의 전통적인 이론과 비교하며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그들은 유진 나이다와 테이버(Taber)가 함께 공저한 『번역의 이론과 실제』(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²⁾에서 나타나는 “내용동등성(dynamically equivalent)”의 번역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이론의 요점은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번역자는 원저자가 이해했던 방식과 똑같이 이해될 수 있도록 문맥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일이다. 그래서 원문의 메시지가 수용언어에 전달될 때에 원천언어의 수용자가 반응한 것과 똑같이 수용언어의 수용자 또한 반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내용동등성 번역은 기존의 “형식 일치”의 번역(formally correspondent translation)과는 대조되는 것으로서, 형식 일치의 기계적 번역이 근본적으로 수용언어의 문법과 스타일을 왜곡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 메시지까지 왜곡시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번역이론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내용동등성 이론은 삼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로는, 분석(analysis)의 단계로서 원천언어의 표면적 구조가 문법적 관계 및 단어와 단어들의 조합을 통하여 분석된다. 둘째로, 전이(transfer)의 과정으로서, 이렇게 분석된 내용이 번역자 내에서 원천언어로부터 수용언어로 전달된다. 끝으로, 재구성(restructuring)의 단계로서, 전이된 내용이 수용언어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최종적 메시지로서 재구성된다.

이러한 나이다의 내용 동등성 이론은 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소위 ‘일상어로의 번역(common language translation)’의 유행으로 대변되는 바, 지배적인 번역이론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이 이론의 한계 또한 만만치 않게 대두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TAPOT*에서 소개된 문장 위주의 언어학(sentence-level-and-below linguistics)은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 문장을 넘어선 담화구조(discourse structure)에 대한 연구노력은 이미 나이다 자신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언어학의 범위에 달린 것이라기보다는 언어학자

1) Aloo Osotsi Mojola and Ernst Wendland, “Scripture Translation in the Era of Translation Studies,” Timothy Wilt, ed.,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3), 1-25.

2) 이하, *TAPOT*로 표기.

체의 원리에 나이다의 번역이론이 너무 집중해 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나이다 자신이 이러한 언어학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다차원적 접근의 번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두 번째 단점은 *TAPOT*가 형식동등성과 내용동등성의 이분법적 원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번역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단어 대 단어(word-for-word)와 의미 대 의미(sense-for-sense)의 구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구분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로, *TAPOT*는 소위 ‘도관 이론의 오류(the fallacy of the conduit metaphor)’³⁾가 전제되어 있는 의사소통 모델(communication model)에 기초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즉, 도관 비유를 통하여 번역이란 원천언어의 내용에 가장 가까운 대응어를 수용언어에서 재생성해내는 작업이라는 소리인데, 이는 곧 순수하고도 객관적인 의미를 원천언어로부터 획득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읽기와 해석에 있어서 번역자는 그 자신의 전제들과 선입관, 특유의 가치체계와 세계관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상이한 관심들로 인해 순수한 객관적 내용을 채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끝으로, ‘내용동등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번역의 심리적 영향력에만 관심하고 원문에 대한 충실도는 간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문제가 있다.

모졸라와 벤트란트는 이어 *TAPOT* 이후 번역학이 언어학의 아류로부터 해방되어 자율적인 번역 학문(translation studies)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최근에 부각되는 번역학의 이론들을 요약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첫째는, 기능주의적 접근(functionalist approach)으로서, 어떤 특정한 번역이 주된 대상 청취자들에게 읽혀지도록 할 때 수행되는 기능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다. 즉, *TAPOT*에서처럼 원본문에 집중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내용의 일치치를 찾는 노력보다는 수용언어 내에서의 번역기능의 중요성에 더욱 관심하여 번역태도와 방식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뉴기니아에서의 최초의 성서번역의 주된 기능은 선교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나가면서 더욱 다양한 성서번역 본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에 성서번역에 있어서 기능적 전문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경우, 상이한 통화 기능들에 따라 성서 또한 상이한 번역 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둘째는, 기술적 접근(descriptive approach)이다. 이 접근은 번역에 관계된 현상들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그리고 예측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는, 본문-언어학적 접근(text-linguistic approach)인데, 특별히 특징적인 언어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검토를 요하는 본문들(evaluative texts)의 번역에 있어서 구조적 수정이 필수불가결함을 강조한다. 넷째는, 적절성

3) M. Reddy, “The Conduit Metaphor: a Case of Frame Conflict in our Language about Language,” A. Ortony, ed.,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209.

이론 접근(relevance theory approach)으로서, 번역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에 얼마나 수용언어의 청자들이 적절하게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 번역이 얼마나 최대한의 문맥적 효과를 낳는가 등을 질문하는 감정적 그리고 인지적 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이다. 다섯째는, 후기 식민지적 접근 방법(post-colonial approaches)들로서 번역과 권력 사이의 역학관계를 밝히는 것이며, 끝으로 여섯째는 원문이 독자들에게 읽히지기보다는 들려졌을 때 어떻게 이해되었을가에 관심하는 현대적 문자적 접근법(literalist approach)이 소개되어 있다.

모즐라와 벨트란트는 결론부에서, 번역에서 빚어지는 원문의 이질화와 친숙화를 살펴 보면서 지나치게 친숙화된 번역은 원문의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정황과 거리가 먼 개념들을 낳을 우려가 있음을 주의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번역이론들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어떤 특정한 이론의 주도보다는 다양한 접근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성서번역에 있어서 바람직한 자세임을 밝히면서 글을 맺고 있다.

2. 번역과 의사소통⁴⁾

디모데 윌트는 번역을 의사소통으로 보는 이론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소개해 주고 있다: 1. 의사소통의 참여자(participants)와 본문(text) 그리고 매개체(medium); 2. 본문구성과 해석의 틀들(frames); 3. 번역하려는 본문의 목표들(goals); 4. 성서번역과정에서 나타나는 교환(exchange); 5. 의사소통 모델의 도표적 묘사.

2.1. 의사소통의 참여자(participants)와 본문(text) 그리고 매개체(medium)

참여자들에 대해 논할 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은 무언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자들끼리의 상호작용임을 기억하는 일이다.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직접적인 대화와 같이 매개되지 않는 의사소통(unmediated communication)이 있고 반면에 전령사나 대변인 또는 보도자의 경우처럼 매개되어 있는 의사소통(mediated communication)이 있다.

성서번역자들은 가끔 본문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도 할 수 없는 단순한 전달자(messengers)로 비쳐져 왔지만 최근의 번역학 연구에서는 번역자들은 대변인 내

4) Timothy Wilt, "Translation and Communication," Timothy Wilt, ed.,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3), 27-80.

지는 보도자들로써 그들의 번역에는 어느 정도 사회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신학적인 색채가 들어가게 됨을 점차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성서 번역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인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은 다양한 전달자와 대변자들의 활동에 의해 매개되며 성서번역자 또한 이러한 본문전달 활동에 참여하는 자이다. 따라서 우리가 받아서 읽게 되는 성서의 이면에는 일군의 매개자들의 손길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 매개자들이 속한 신앙공동체들에 대한 파악 역시 번역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의사전달로서의 번역학에 있어서 본문은 기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동사들로 이루어진 기호(verbal signs)들에 대한 해석은 번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주된 작업이다. 그런데 기호들로 이루어진 본문들을 생성하고 인지하는 일은 언제나 선택 과정이 동반된다. 즉, 본문을 읽는 이들의 필요나 상황에 따라서 본문해석이 달라진다는 소리이다. 이제는 본문의 순수한 의미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본문을 접하는 청자들에 의한 의미구성(constructed meaning)으로 의사전달의 중요성이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원문과 번역문의 수직적 관계성에 있어서 원문은 왕이요, 번역문은 하녀에 불과하다는 이전의 입장에서부터 이제는 번역문이 왕의 자리로 오르고 원문이 하녀로 전락하는(dethroning the source text) 현상을 빚게 만들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원문과 번역문의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이질적' 번역과 '친숙한' 번역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전자는 원문이 타문화권에서 생성되었음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번역문을 접하는 독자들의 문화에 원문의 내용을 동화시키려 하는 노력이 드러나게 된다.

본문을 구성하는 기호들의 선택과 배열은 어떠한 매체(medium)가 사용되는가에 따라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성서번역본들은 인쇄된 매체로서 나타나지만 때에 따라서는 교회의 예배 때 낭독되는 교독문과 같이 구두로서도 전달된다. 인쇄매체로부터 음성매체나 다른 형식의 더욱 확장된 매체의 연구는 문맹자들이나 장애자들 그리고 다중매체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한 성서전달을 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2. 의사소통을 위한⁵⁾ 틀(Frames)

성서번역의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원문에 대한 해석과 번역문의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각 요소의 환경들은 다양한 틀(frames)로서 묘사될 수 있다: 인지적, 본문중심적, 상황적, 사회조직적, 사회문화적 틀.

인지적 틀(cognitive frames)은 우리로 하여금 정보를 이해하고 종합하며 친숙

5) 윌트의 본문의 2장의 제목은 단순히 '틀(frames)'로 나오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자가 '의사소통을 위한'이라는 말을 첨가함.

하게 하는 경험과 반성들을 통하여 발전된 정신적인 결합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문화적 틀(sociocultural frames)에 대한 고려는 성서번역자들로 하여금 제한적인 사회문화적 예식이나 종교적 관습 또는 학교생활이나 운동경기 등과 같은 실천적인 문화환경에 접하게 함으로써 성서와 사회문화의 친밀한 상호관계를 깊이 묵상하도록 이끈다. 사회조직적 틀(organizational frames)에서는 다수의 사회조직들의 상이한 기대와 만족도에 의해서 성서번역이 영향을 받는 복잡한 상황이 발견된다. 특히 번역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다섯 가지 근본적인 원칙들에는 각 사회조직의 구조, 문화, 심의감시(gatekeeping), 권력, 그리고 교육훈련이 있다. 의사소통의 상황적 틀(communication-situation frames)은 의사전달에 있어서 일어나는 제반적인 요소들에 관계한다. 그 요소들에는 상황, 참여자, 목적, 행위의 결과, 기조(key), 방편(instrumentality), 규범, 장르 등이 있다. 오늘날 이 의사소통의 상황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응용과학의 발달 그리고 성서번역에 대한 입장 차이들로 인해 과거와는 판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본문 중심적 틀(text frames)은 본문내의 문자적이고 기호적 그리고 인지적 배열에 관심한다.

2.3. 의사소통의⁶⁾ 목적들(Goals)

번역될 본문의 목적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번역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의사소통을 위한 번역에 있어서 앞서 이야기 되었던 네 가지 틀들 즉, 사회문화적, 사회조직적, 상황적, 그리고 인지적 틀들은 새로운 본문을 만들기 위한 번역작업의 목적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목적 또한 번역이론에 도움이 된다: 표현적, 지시적, 상호접촉적, 언어교환적, 맥락적, 참고적, 그리고 의사소통연구를 위한 목적. 이 목적들을 다룸에 있어서 과거의 문장중심의 언어학적 연구와는 달리 1970년대 이후에는 문장을 넘어서 담화와 본문전체를 한 언어맥락으로 연구하는 광의의 목적에 대한 연구들이 성서번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번역자에게 있어서 큰 도전 중 하나는 상충하는 번역목적들이 대두될 때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형식과 내용 사이의 상반되는 번역목적은 가장 많이 논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형식보다는 내용을 더욱 중시하는 번역이 주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본문의 문학적인 구성을 강조하는 흐름에 힘입어 본문의 형식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본문연구가 활발하다. 또 다른 편의 번역목적의 충돌은 한 문장이나 일정한 문학 단위에서 나타나는 의미 중심의 번역과 여러 문학 단위 내지는 책 전체에서 나타나는 주제에 초점을 두는 번역 사이에서 드러난다.

6) 윌트의 글에서는 ‘목적(Goals)’으로만 기록되어 있음.

의사소통의 번역이론에 있어서 이제까지 관심을 받지 못한 분야가 있다면 제의적 의사소통(ritual communication)인데, 이곳에서 이야기되는 의사소통은 바로 나눔과 참여 그리고 연합과 친교, 그리고 공동된 믿음의 소유라는 개념들을 통한 교통을 의미한다. 따라서 번역작업에 있어서 그 성과가 바로 번역문을 읽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에서 주된 관심영역이 되어야 한다.

2.4. 성서번역과정에서 나타나는 교환(Exchange: focus on the Bible translation process)

끊임없이 진행되는 의사소통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계속된 본문들의 교환이 일어난다. 성서번역의 과정에서도 참여자들의 상이한 환경과 전달자로서의 번역자들의 역할 사이에서 계속되는 교환이 일어난다. 번역의 과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소통 상황의 복잡성을 밝히 이해하게 되는 데, 중요한 것은 번역자와 번역을 돕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 성서번역 과정에 대한 상호이해가 전제된다면 단지 지식전달적인 목적뿐만 아닌 제의적 교통의 목적까지도 아우르는 다방면의 수준에서 다양한 교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성서번역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번역될 성서가 현재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기에 이곳에서는 성서번역문 출판사들의 대표자들과 장차 번역문을 접하게 될 청자들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에 번역 작업에 참여케 되는 기구가 더 생길 때 그 다른 단체와의 상호보조적인 연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완성된 번역문은 더욱 넓은 독자층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번역계획의 목적은 단지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도 되어진 청자들과 그 번역을 돕는 조직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자원들을 다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실제적(realistic)이어야 한다. 한 가지 오늘날 성서번역에 있어서 고무적인 사실은 다양한 번역기구들과 학문적 기관들, 그리고 교회들을 통하여 심도 있고 연속적인 번역자를 위한 응용훈련 프로그램들이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번역된 새로운 본문의 효율성은 바로 번역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하여 여러 단체들에게 훈련을 시킬 때 향상된다. 이제 새로운 본문으로서 번역문이 완성되고 나면 이 새 본문에 대한 청자들의 반응과 평가들이 계속해서 추적되고 연구되며 한편으로는 이 과정 자체가 번역자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된다. 번역과정은 어떤 면에서는 청자들에게 사용 가능한 성서들을 만들어 내는 일과 그들의 성서들과의 상호관계를 불러일으키는 일의 연속적 교환 작용이다. 따라서, 번역과정은 하나의 번역된 성서본문의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

나라 의사소통에 있어서 청자들의 요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응답하는 미래의 새로운 본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작업을 펼쳐가게 된다.

2.5. 의사소통 모델의 도표적 묘사

의사소통 모델은 ‘쉬운’ 의사소통과 ‘어려운’ 의사소통으로 나누어진다. 쉬운 의사소통은 화자가 마치 한 본문이, 기호들을 나열하듯이 일정한 기호들의 배열을 그대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자 역시 화자의 본문 목적과 같은 선상에서 본문을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선택하면서 화자의 본문을 인지하게 된다. 이에 반해, 어려운 의사소통에서는 청자가 화자의 기호들을 인지하고 반응을 하긴 하되 본문을 해석하고 반응을 구성함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상황과 의사소통의 제반적인 틀들이 최소한의 공통영역을 보이게 된다. 이렇듯 의사소통으로서의 번역에서는 번역자와 번역문을 접하는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의 틀들의 겹치는 정도의 차이가 번역문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2.6. 결론

성서번역자는 여러 상이한 공동체들 사이의 매개자이다. 이 각각의 공동체들은 번역자의 본문해석과 번역생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의사소통의 틀들을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번역자들은 그 공동체 성원들의 틀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들을 강화시키고, 도전하기도 하며, 확장시키고 또 변형시켜 나간다. 의사소통은 공동체와 공통성을 동반한다. 성서번역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번역자들로 하여금 각각의 공동체들 간의 공통성과 상이성들을 이해하게 하며 그 상호작용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가르쳐준다.

3. 번역에 미치는 문화의 역할⁷⁾

베스컴은 번역에 미치는 문화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한 문화 내의 암묵적인 지식과 가치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타문화권에서 형성된 자료들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문화적 틀들(cultural frameworks)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집중한다.

3.1. 카탄의 ‘문화 번역하기’

7) Robert Bascom, “The Role of Culture in Translation,” Timothy Wilt, ed.,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3), 81-111.

베스컴은 먼저 문화와 번역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카탄(D. Katan)의 『문화들에 대한 번역』(*Translating Cultures*)을 소개하고 있다. 카탄에게 있어서, 문화는 어떤 하나의 정적인 형식이 아닌, 그 자체로서 하나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표현된다. 언어학자들에게 있어서 단어들과 그에 대응하는 대상물들은 일정한 문화적 틀 내에서 말하는 이들에 의하여 조절되듯이, 언어를 이해하는 데 차지하는 문화의 비중은 자못 크다. 실제로 한 문화권 내에서 나타나는 관습이나 행동 또는 생활품들은 그 이면에 그 문화의 특수한 가치나 기준 또는 신념체계에 의해 생성된다. 그러나 이렇듯 보이는 행동들의 기저에는 그 문화 내의 모든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신념들이 그 사회전체의 문화적 열개로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들이 경험하는 문화적 입장 차이로 인한 ‘어휘와 개념의 간격’은 다른 문화권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정한 문화적 바탕 위에서 무엇을 전제하고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 결정되기 쉽기에 이러한 정신적 열개나 모델들은 번역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대상이다.

상이한 문화 간의 번역을 논의하면서 카탄은 번역자를 문화의 중개자로 이해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제 번역자는 원천언어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해석의 틀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수용언어의 독자들이 그와 똑같은 해석의 틀들을 갖도록 번역문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탄은 더불어 그 문화적 틀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지적하고 또 그것들을 분류하려고 시도한다. 특별히 문화적 신화들(cultural myths)의 문제에 집중하는데 실제의 문화(real culture)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그 문화권 내의 사람들의 생각과 타문화권 사람들의 생각이 둘 다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데, 번역자의 의무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잘못을 교정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화적 신화들은 여전히 잘 드러나지 않는 문화체계의 기층에 자리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성(basic orientation)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상이한 문화 하에서 똑같은 정보는 다양한 판단과 관련들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카탄의 논의 가운데 번역자들에게 크게 시사하는 바는 어떤 한 문화의 언어형성과 의미전달에 깔려 있는 문화적 심층에 대한 파악이 기계적인 언어내용의 전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이다.

3.2. 여인, 불, 그리고 위험한 것들

다음으로, 베스컴은 경험세계의 범주화에 미치는 심리적이고도 문화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는 랙코브(G. Lakoff)의 『여인, 불, 그리고 위험한 것들』(*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을 소개한다. 랙코브는 사람들이 경험을 범

주화(categorization) 시킬 때, 본보기 효과(prototype effects), 곧 일련의 선택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나은 예로서 선택하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한다. 이 본보기 효과는 바로 범주화의 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랙코브의 범주화 접근은 ‘기층구조(basic level structures)’라는 개념과 관계되는데 이는 어떤 특수한 이름이 그 특수한 범주 수준에서는 최고의 위치를 점한다는 소리이다. 예를 들면, ‘다임(10센트 주화이름-역자주)’은 ‘동전’이나 ‘돈’ 또는 ‘1952년 다임’으로 불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를 ‘다임’이라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층구조는 여전히 범주화의 틀에 예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발 더 나아가, 랙코브는 ‘이상화된 인지적 모델(idealized cognitive models)’들에 대해서 언급한다. 즉, “한 주는 곧 칠일이다” 할 때 원래 일곱 날 또는 한 주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놓고 이를 이상화시켜 놓았다는 소리이다. 모든 문화에 이 ‘주(week)’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이 인지적 모델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문화적 틀인 것이다. 이렇듯 인간 생각의 의사전달에 있어서 기초적인 범주화의 과정은 문화적인 틀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3.3. 밤, 해, 그리고 포도주

베스کم은 영어에서 ‘밤’을 이야기 할 때에 각각의 문장에서는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그녀는 밤이라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때, 어둠과 빛이 이 문장의 초점이다. 그러나, “그 모임은 내일 밤 8시입니다”라고 이야기 할 때에는 그 강조는 하루의 때를 가리키게 된다. 또 다른 예로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나는 한 밤 중에 잤습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자다가 잤다고 하는 데에 그 강조점이 있다. 이렇듯, 어떤 말은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말이 쓰이고 있는 맥락에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

마야 문명의 후손들인 토칠(Tzotzil) 원주민들에게서는 해와 밤이 전통적으로는 ‘거룩한 아버지’와 ‘거룩한 어머니’로 지칭되었다. 그러나, 카톨릭과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들의 문명에 영향을 주면서 해와 달을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또는 ‘날’과 ‘달’로 부르게 되었다. 따라서, 토칠에서는 그들의 문화 언어적 발전사 가운데 낮과 밤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언어들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성서 번역자들은 이에 대한 단어 선택 시 따로 각주에서 다른 표현들 또한 기입하게 되었다. 포도주를 일컬을 때에도 사교적인 의미에서 술을 마시는 문화가 없는 토칠 원주민들을 위해서는 술 취하기 위함이 아닌 교제를 위한 음주에 대해서는 각주를 통한 설명이 필요하다.

3.4. ‘열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열쇠’ 하면 금방 이전에 잠겨있던 문을 열어가게 되는 기존의 틀과 연관될 것이다. 또한 이 ‘열쇠’의 의미는 여러 다른 뜻, 특별히 추상적인 의미로도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영어의 열쇠(key) 라는 단어와 스페인어의 열쇠(*llave*)라는 단어는 그 의미 영역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 즉, 스페인어의 열쇠는 수도꼭지나 연장의 핸들로도 쓰이고 있으며, 반면에 영어에서 이야기 하는 열쇠의 추상적 의미는 *llave*가 아닌 *clave*로 쓰이게 된다. 결국, 영어의 열쇠는 구체적인 의미와 추상적인 의미 둘 다 쓰일 수 있지만 스페인어의 열쇠는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3.5. 기본적인 성서개념들

성서의 언어들은 상호관계성(reciprocity)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창세기 38장에서 나오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한 장면에서 유다는 자신이 다말에게서 속은 것을 안 뒤에 오히려 다말에 대해 자신보다도 더 정의롭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다말이 자신의 율법적 의무를 유다를 통해서라도 완수한 것을 의미한다. 즉, 여기에서 ‘의롭다(체택 또는 체다카)’ 함은 율법적 상호규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창세기 15:6에서는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었고(헤에민), 하나님은 이것을 의롭게(체다카) 여기신 장면이 나온다. 이곳에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해의 차원이 아닌 상호관계적 성격이 배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주로 ‘보수자’ 또는 ‘기업을 무를 자’로 해석되는 고엘(go'el)은 사실상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의로움(체테카)을 실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에게 보호를 받는 이는 그 보수자에게 변함없는 신뢰(에무나)를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가르치는 헤세드 또한 사실상 어떤 일정한 관계성 상에서 행해지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틀과 경계 개념은 특별히 거룩과 부정의 개념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에 있어서도 거룩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세속적 시간과 공간 사이에 경계가 있음을 상징한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조보도에 있어서도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경계를 나누는 일들이었다. 인간의 육체 또한 경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로 간주되기에 침해 또는 붕괴에 반대되는 몸의 통전적(integrity) ‘순전함’을 유지하기 위한 율법적 규정이 등장하게 된다. 동물제사는 거룩한 성전과 절기라는 경계 내에서⁸⁾ 동물의 몸으로 상징되

는 하나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일이다.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경계를 상징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본다.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도 경계의 의미가 병과 치유함의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신약에서 병이 낫는다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육체적 고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한 개인을 사회적인 정상인으로 되돌려 놓는 사회적 치유의 의미 또한 갖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은 이렇듯 육체적 한계의 벽을 넘어서 사회적 장벽들 또한 허무는 일이었다.

3.6. 결론

모든 문화는 세상에 대한 정신적 개요도(mental maps)를 발전시켜 왔다. 번역자는 바로 이러한 문화적 개요도를 원천언어에서뿐만 아니라 수용언어에서도 파악하여 성서본문과 번역된 본문에서 그 개념적이고 상징적인 세계가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 언어학 이론의 발전과 번역에서의 그 이론의 적용⁹⁾

오늘날 언어학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보편성(universalism) 대 상대성(relativity)이다. 언어학에서 보편주의는 모든 언어의 근본구조는 똑같은 주장인 반면, 상대주의는 언어들은 다 틀리며 문법적으로나 어휘적으로나 각각의 언어가 근거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내세운다. 최근의 경향은 문화와 세계관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후자에 집중하고 있고 번역이론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고 있다.

언어학적 상대주의에 근거한 락코브(Lakoff)와 존슨(Johnson)은 『비유와 더불어』(*Metaphors We Live By*)에서 각 언어권에서 나타나는 비유들은 그들의 세계를 개념화하고 조직화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비유란 자의적인 상징어가 아닌 화자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다. 번역자들에게 있어서 상이한 문화 속에서 비유들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일찍부터 지적되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쓰이는 비유적 언어에 대한 훈련이 요구되고 있다.

언어학에 있어서 상이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방향을 나타내는 방식

8) “거룩한 공간과 시간이라는 구별된 영역 내에서” (역자주).

9) L. Ronald Ross, “Advances in Linguistic Theory and their Relevance to Translation,” Timothy Wilt, ed.,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3), 113-151.

(spatial orientation)인데 이는 각 문화마다 방향을 나타내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역자는 여전히 두 문화 사이에 상통하는 방향에 대한 개념체계에 근거해 번역할 수 있다.

언어학에 있어서 ‘유형학(Typology)’은 구조적 공통성에 근거해 언어들에 여러 유형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 한다. 여기에는 어순유형(constituent order typology), 문법유형(grammatical typology), 유형적 의미론(typological semantics)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들에 대한 이해는 번역자로 하여금 문장 수준을 넘어서서 담화(discourse) 수준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한다. 따라서 원천언어와 수용언어 사이의 유형적 차이와 각각의 유형들이 어떻게 다르게 의미를 이끄는가에 대한 이해를 위한 번역자의 훈련은 필수적이다.

츨스키에 의하면 근본적 동일한 개념체계를 지니고 있는 언어들에 그 구문상으로나 어의상으로 공통성이 내재한다고 이야기 한다.¹⁰⁾ 이에 따르면 번역자가 할 일은 그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에 상응하는 단어들만 대입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번역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와 같이 간단하지가 않다. 실제적으로, 타언어권과 타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변형들은 생각보다도 더 심각하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언어권 사이라 할지라도 상응하는 어휘를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어의적 불일치는 번역에 있어서 어려움을 한층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허드슨에 의하면, 원형들(prototypes)과의 관계성 상에서 의미를 검토해 본다면 어의적 불일치의 문제는 감소되리라 본다. 그러나 여전히 그 원형들에 있어서도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화용론(pragmatics)의 한 언어학적 분과를 발전시킨 폴 그라이스(Paul Grice)에 의하면, 순수한 언어들 의미는 많은 경우 추론적이라고 주장한다.¹¹⁾ 우리가 실제 말하고 듣는 것보다 더 많이 의사소통을 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어의론적이고 구문론적인 문제가 아닌 ‘대화의 규칙과 원리들’에 있다. 특별히 그라이스는 협력원리(Cooperative Principle)라 하여 대화를 최대한 적절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양적, 질적, 관계적, 그리고 방식 이라고 하는 네 가지 범주들을 개발한다. 그러나 이 협력원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앵글로족의 성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화용론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의 또 다른 관심사는 언어 행위(speech acts)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¹²⁾ 주장, 평

10) N. Chomsky, "Language in a Psychological Setting," *Sophia Linguistica* (Tokyo, 1987).

11) P. Grice, "Logic and Conversation," P. Cole and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Speech Acts 3*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가, 태도, 규정, 요구, 제안, 권위행사, 수행 등. 번역자들은 이렇듯 말하는 것에 동반되는 언어행위들에 대한 파악이 두 언어 사이의 의미 소통에 있어서 중요함을 주목해야 한다.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은 그것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를 연구하는 것으로 말하는 이들을 그들의 공동체에 연결하여 주는데 공헌한다. 특별히 사회언어학자들은 성서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얽혀서 나타나는 다언어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쉽게 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성서 번역자에게는 이러한 사회언어적 관점에서의 번역이 성서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관계성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은 언어사용의 실제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으로서 문장 수준의 언어학이 갖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부각되는 연구 분야이다. 담화분석가들에 의하면 주된 이야기의 사건들은 전면에 부각되지만 정말로 근본적인 이야기의 정보는 후면에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그들은 본문의 틀과 틀 만들기에도 관심이 있다. 특별히 같은 본문에 대한 상이한 제목들이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달리하는가를 보여 줌으로써 이야기의 틀과 본문의 해석 간의 긴밀한 관계성을 보여준다.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란 화자가 이야기할 때에 들려지는 개념들의 사전 정보가 이미 청자에게 주어져 있기에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가능토록 하는 언어학적 인지구조라 할 수 있다. 화자는 그의 발언을 꾸밀 때 이 근본적인 정보구조를 전제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번역자들은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언어학적 연구들은 성서 번역자에게 원천언어와 수용언어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요청됨을 보여주고 있다.

5. 성서학 연구와 성서 번역¹³⁾

성서학 연구의 발전은 곧 성서번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모든 학문 분야의 상호보완적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12) B. Fraser, "Hedged Performatives," P. Cole and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Speech Acts 3* (New York: Schocken Books, 1975).

13) Graham Ogden, "Biblical Studies and Bible Translation," Timothy Wilt, ed.,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3), 153-177.

성서학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분야는 어휘와 문법연구이다. 오늘날 이 분야는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효율적인 연구 성과를 올리고 있다. 두 번째로는 역사비평 분야이다. 본문의 형성 역사에 근거해 해석 또는 주석하는 연구로서 성서연구 분야에서 그 주된 학문적 우위를 점하여 왔다. 그러나 역사비평 연구의 가설적 측면은 학자들 간의 공통된 학문적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하였던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고려는 그 기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문비평 분야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원문을 확정짓기 위한 노력으로서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가져 왔으며 계속되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비평 편집(Scholarly Editions) 작업은 이 분야의 연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특히 본문연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은 사해사본의 발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신약성서 본문연구에 있어서 커다란 흥분과 실제적인 영향을 안겨준 사건이다. 특히 본문전통들의 전승과정에 대한 역사적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으며 70인역의 번역이 믿을 만한 것임을 증명해 주었고 또한 그 동안 확정되지 않는 다른 마소라 사본의 히브리어 읽기와 뜻을 확인하여 주는 공헌을 하였다. 고고학적 연구 분야는 감추어져 있던 이스라엘 종교와 삶에 계속되는 빛을 비추어 왔다. 그림들과 발굴품들은 성서 번역자로 하여금 성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좋은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고대 민족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들에 대한 이해는 번역자에게 성서의 사건들에 대한 정치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배경들을 알려 준다는 점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성서의 최종본문이 어떻게 결정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밝히는 원문비평과 편집비평은 성서학 분야에 있어서 고전에 해당하는 해석 방법론이다. 이러한 방법론 자체가 갖는 가설성으로 인해 학자 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성서본문 형성에서 나타나는 본문의 구성, 전승 그리고 편집 등의 제 과정에 대한 연구는 성서 본문의 복잡한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밝혀주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정경비평 방법은 비교적 최근(1970년대 이후)에 부각되는 방법론으로서 성서가 정경화 되는 과정을 그 신앙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어떠한 신앙적 도전과 고백이 현재의 정경의 형태를 생성해냈는가에 관심이 있다. 또한 지금 놓여 있는 정경의 위치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각 책에 담긴 내용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외경(Apocrypha)과 위경(Pseudepigrapha)에 관한 연구는 특히 더욱 광범위한 기독교 공동체의 범위를 확보하고 정경화 과정 가운데 나타난 본문전통의 다양한 흐름을 알아보려는 성서공회의 관심과도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 연구가 활발하다. 신구약 중간기의 문서로서 주목받는 또 다른 하나는 묵시문학들(Apocalyptic literature)이다. 더군다나 묵시적 종말론이 예수공동체에게 있어서

지배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신학연구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대두된 본문간 읽기(intertextuality)는 성서해석에 있어서 성서문헌 전통 내에서도 아니면 성서 밖의 문헌전통에서 본문의 개념이나 내용을 차용해오는 방식에 관계한다. 간접적 암시든, 직접적 인용이든지간에 성서의 저자는 다른 본문의 구절들을 차용해 옴으로써 현재의 본문의 의미를 더욱 발전시킨다.

최근 몇십년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성서해석 방법으로는 독자비평 방법(reader-response criticism), 여성신학적 읽기(feminist approaches), 간문화적 내지는 토착화적 읽기, 후기식민주의적 읽기, 지역중심적 읽기(region-centric studies), 이데올로기 중심의 해석, 그리고 사회적 접근 등이 있다. 특히 여성중심, 지역중심, 내지는 후기 식민주의적 읽기 등의 방법론이 대두되고 있는 점은 그만큼 성서해석의 상황이 다양한 관점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에 따라 번역 작업 또한 신앙공동체의 현장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과 도전에 민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성서본문의 분석과 번역을 위한 문학적 연구¹⁴⁾

벤토란트는 지난 몇 년간 성서가 하나의 문학작품임이 많이 이야기되어 왔던 것에 비해, 번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학적인 강조가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성서에서 나타나는 문학적 스타일과 수사학적인 특징들이 그 내용의 일치를 이루며 번역문 가운데 반영될 수 있을까?’를 묻는다. 이를 위해 성서에서 나타나는 문학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번역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문학에서 보이는 다면적 단일체(a multifaceted unity)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한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불일치와 역사적 형성과정에 대해서 간과하지는 않지만 문학적 연구에 있어서는 본문을 전체가 온전히 하나를 이룬 연합체로 전제하고 읽게 된다. 이렇게 문학적 단일체를 이루게 하는 요소로서는 연결능력(connectivity)과 본문 간 연관성(intertextuality) 그리고 문학적 전형(archetypes) 등이 있다.

본문의 연결능력은 응집력(cohesion)과 일관성(coherence)에 의해 좌우된다. 응집력은 본문의 결합을 돕는 형식적 요소를 일컫는다. 이들은 음성적이거나 어휘적 또는 구문적 표현들을 빌려 주로 반복을 통하여 나타난다. 즉, 음성동기(sound

14) Ernst Wendland, "A Literary Approach to Biblical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 Timothy Wilt, ed.,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3), 179-235.

motifs)나 주제어의 반복 또는 어휘의 대체, 생략, 또는 선호하는 문법적 구조물의 반복적 사용 등으로 본문의 응집력이 형성된다. 일관성 내지 통일성은 본문의 연결능력에 있어서 의미론적(semantic)이고 화용론적(pragmatic)인 측면이다. 이 일관성은 응집력을 보완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한 문학 구성체 내에 언어적 응집력을 이루는 다양한 고리들의 산물로서 설명될 수 있다. 두 번째, 본문 간 연관성은 여러 본문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관계성을 의미한다. 이는 한 본문 내에서 발견되는 인용들과 암시들, 반향들(echoes), 그리고 종교적 동기들이 다른 정경적인 본문들에서도 이미 형성되어져 있었음이 확인될 때에 발견된다. 예를 들면 요나서 4장과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는 예언자의 죽음 간구 동기 등이 성서 내의 본문들 간의 긴밀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본문 간 긴밀성이 발견되는 본문들을 번역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상호연결 단서들이 현재의 본문에 어떠한 내용상 또는 정서상 영향을 주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전형문학(archetypes)은 성서의 단일성을 이루게 하는 세 번째 요소이다. 다양한 본문들 가운데 나타나는 주제의 반복, 특징적 형태, 형상화와 상징들의 반복적 요소들을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의 문학전통이나 문화들의 구전민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중심 상징이나, 인물 또는 이미지들을 일컫는다. 그리스도의 비유들은 그것의 전형적 성격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 가운데 호소력을 지닌다. 구약의 시인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이미지들을 고대근동의 신 현현 문학들의 전형적 형태로부터 가져오고 있다. 번역에 있어서 이러한 이미지들에 대한 지시적 내용(denotative content)과 암시적 함축들(connotative associations)에 대한 파악이 번역문을 대할 청중들에게 있어서 원천언어의 독자들에게 나타난 것에 가장 가까운 인상적 효과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요청된다.

문학적 단일체에 대한 논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한 문학 단위 내에 놓여 있는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것이다. 상이한 문학적 특징들은 본문 내에서 미학적 다양성과 장르구조를 구분하고 구성하는 일, 담화 패턴을 만들고, 특별한 강조점들을 드러내고 생생한 기억을 돕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형태는 이야기 단위들의 분리이다. 즉,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전개에 있어서 상이한 주제의 구조단위가 갑작스런 단속이나 관점의 전이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학적 다양성은 상이한 대조와 강조, 가정 그리고 형식과 내용 또는 기능에 대한 암시 등을 동반한다. 성서 내의 결합시키는 요소로서의 지시적이고 암시적인 내용들은 한편으로는 각각의 문화적이고 종교적 바탕에서 그 특수성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성서 예언자들에 대해 기대되는 바와는 전혀 다른 요나의 행위는 오히려 그 돌출성 때문에 본문의 아이러니적 특색을 더욱 잘 드러내 준다.

모든 담화의 목표는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설득에 있다고 볼 때에 문학적 접근에 있어서 수사학적 측면(rhetoricity)은 주요 관심사가 된다. 특히 번역자에게 있어서 설득을 위한 기술들 즉, 설득에 동원되는 일정한 정신적 틀과 언어를 통해 제공되는 분명한 증거들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성서문학에서는 설득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인용과 생략 삼단논법(enthymeme), 그리고 예증 등이 있다. 이러한 담화 수사기술에 대한 더 깊은 연구는 번역자로 하여금 청중들에게 더 나은 수사학적 초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본문구조에 대한 연구는 번역에 있어서 주요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첫 번째로, 장르에 대한 연구이다. 장르란 특별한 스타일이나 형식 또는 내용에 의해 드러나게 되는 예술적인 작문의 한 범주로 정의 될 수 있다. 상이한 장르들은 다양한 코드와 관념들과 연관되어 있기에 이 장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른 의미와 정보들을 얻게 된다. 특히 독자의 입장에서 그 장르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 수록 본문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기에 번역자에게 있어서도 이에 대한 파악이 절실하다. 에틱 장르(etic genres)에 있어서는 크게 산문과 시문으로 나누게 되지만 실제로 성서의 예언서나 지혜서들의 경우, 이 양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한 담화단위 내에서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순전히 형식 중심의 구분보다는 기능 중심의 구분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형식중심적인 관점에서 산문체는 이야기체, 권고체, 예언체, 기술체, 법률체, 설명체, 열거체 등이 있고 시문체에는 성서상에 서정체, 교훈체, 열정체, 묵시체 등이 있다.

패턴 부여(patterning)는 일정한 장르의 담화조직 가운데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기본적 작문 단위들과 관계들을 일컫는다. 특히, 본문 내에 주어져 있는 반복의 상이한 형태에 의해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균형과 대칭 등을 다룬다.

전면 꾸미기(foregrounding)는 성서에 대한 문학적 연구에 있어서 규정하기 까다로운 개념이나, 벤트란트는 ‘돌출(prominence)’과 ‘발달(progression)’의 개념으로 설명하려 한다. 언어적 그리고 문학적 ‘돌출’ 묘사는 잘 형성된 본문의 구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측면을 갖는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여러 단위들과 측면들을 구분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적 담화 가운데 필요한 두 가지 타입의 돌출적 전면 꾸미기에는 제목과 초점이 있다. 어떤 한 문학단위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어떤 논리와 제목 또는 주제 전개와 발달의 역동성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발달’의 개념이 대두된다. 특히 극적 이야기의 서술전개를 이끄는 구성(plot)의 흐름은 이 문학적 발달 개념을 잘 시사해 주고 있다.

형상화(imagery)는 작가가 그림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의 독자들로 하여금 인지적이고도 감정적인 능력을 자극키 위한 기술이다. 비유와 은유는 성서의 이미지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들은 두 개의 상이한 실체나 사건들 또는 경험의 영역들 사이의 유사 또는 대응을 주도한다. 번역자들은 성서의 이미지들을 과연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문화차이로 인해 나타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비유들은 독자들을 위해 따로 부록이나 각주를 달아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성서의 시문들은 주목할 만한 음운조직을 보이는데 이는 구두낭독과 청각청취의 상황으로부터 본문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있어서 수사학적 형식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음운론적 요소들은 번역자에게 있어서는 재구성해 내기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능숙한 번역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언어에 존재하는 음운론적 특징들을 창조적으로 동원해 어느 정도 유사한 음운조직을 형성해 내기도 한다.

극적 기법(dramatics)이란 앞서 이야기 된 어떠한 문학적 특징들에서도 여전히 함께 설명될 수 있을 만큼 특정한 분야이다. 극적 기법이라는 말은 성서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도 생동감 있는 성서 본문의 경향을 가리키는 말로서 직접 화법 가운데 언어적/문학적 형태로 심겨져 있다. 본래 읽혀지고 들려지는 본문을 문서상의 형태로 변형시키려는 번역에 있어서는 어휘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리가 들리는 차원에서의 꼼꼼한 검토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문학적 기능적 대응을 위한 접근은 다음의 주요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담화-중심적 그리고 장르-근거적 관점; 두드러진 실제적-기능적 요소 중심; 지시를 위한 상황적 틀에 대한 관심; 담화 영역에서의 예술적이고 수사학적인 영역들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초점; 그리고 구두와 청취의 영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 등.

7. 결론

윌트는 여러 번역이론에 대한 최근의 연구논문들을 엮은 본 책을 끝내면서 성서번역의 관점과 실천에 영향을 준 제반적인 분야들을 요약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의사소통 이론으로서 이에에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고려, 단순한 언어의 내용전달의 기능을 넘어서서 본문적 기능, 제의적 기능, 심미적 기능 등에 대한 관심,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선입관을 낳게 하는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 번역계획과 관련되는 여러 사회적 조직들에 대한 고려, 제문화간 상호관계의 복잡성에 대한 주목 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외에도, 번역될 본문들을 어떻게

표현해내느냐에 대한 연구, 성서학 연구 분야와의 관계, 과학기술과 인쇄술의 발달의 공헌, 성서 번역자들의 훈련 등을 언급하고 있다.

번역작업 과제 자체는 다른 작업들과 함께 가야 함을 지적하면서 이에는 번역에 참여하는 이들이 사회조직과 더 작은 규모의 공동체들 사이의 중재자로 활동하는 일, 번역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진행되어야 할 번역과정에 대한 보고와 공동체들의 반응 접수의 수행, 그리고 번역문이 완성된 이후에는 독자들의 실제적인 사용 상황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번역이란 다른 언어나 언어들에 의해 생성된 한 본문을 일정한 하나의 언어로 재연해 내려는 시도로서 정의된다. 여기서 ‘시도’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실제적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 때문에 나타나는 개념이다. 특히, 성서 번역자에게 있어서는 원문에 대한 강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치’에 가까운 번역을 목표로 하지만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유사’에 불과하다.

끝으로, 윌트는 내용동등성 이론(dynamic equivalence)과 기능동등성 이론(functional equivalence)을 구별한다. 내용동등성 이론은 나이다와 태이버의 *TAPOT*로 대변되는 바, 언어학적 관점과 번역에 대한 규정적 접근, 그리고 제한된 문학적 관심이 반영되어 있는 이론이다. 이에 반해 기능 동등성 이론은 단지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사소통적 기능들을 고려하는 바, 이에는 더욱 다양한 세부적 언어학의 원리들이 다루어지게 된다. 궁극적으로, 윌트는 문학적 기능적 동등성(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이론을 주장한다. 이는 바로 기능적 동등성 이론을 추구하되 번역하는 과정에서 본문의 문학적 장르와 문학전체의 주제를 고려하는 그러한 번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의 번역은 어떤 지배적인 하나의 이론을 고집하기보다는 다차원적 접근을 통한 번역이 바람직함을 말하고 있다.

<Abstract>

Book Review-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Dr. Keun-Jo Ahn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This book presents up-to-date theories in translation since the time of the publication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1969) by E. Nida and C. Taber, which presented the theory of “dynamically equivalent” translation. Timothy Wilt has edited six articles that reveal to us the shift of the focus of translation from dynamic and functional equivalence to the more complicated frame of translation. This change signifies that the task of translation is not just to ‘represent’ but to ‘communicate.’ When we understand the rendering of a biblical text into another language as communication, the process is likely to be more open-ended, which includes preaching or producing other texts inspired by translation. In addition to this emphasis on communication, Ernst Wendland and Timothy Wilt consider the capacity of literary approaches in Bible translation, labeling them ‘*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

The six articles collected in this volume are:

1. “Scripture Translation in the Era of Translation Studies” by Aloo Osotsi Mojola and Ernst Wendland;
2. “Translation and Communication” by Timothy Wilt;
3. “The Role of Culture in Translation” by Robert Bascom;
4. “Advances in Linguistic Theory and their Relevance to Translation” by L. Ronald Ross;
5. “Biblical Studies and Bible translation” by Graham Ogden;
- and 6. “A Literary Approach to Biblical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 by Ernst Wendland.

Various approaches and sophisticated methods are utilized in the translation process. Of course, as Wilt admits in his conclusion, it is inevitable for a translator to select from among the variety of valid approaches available for diverse communities and communication circumstances. Yet, the purpose of this book is to help translators to take advantage of these many tools and to produce translations well appreciated by their communities. Diverse frames of reference in Bible translation require translators to exercise discreet techniques and inter-disciplinary methods.